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3. 누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복음의 기독교론 -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

※ 오늘의 포인트

- ① 기독교론이란 무엇인가요? (기독교론 이해 방법론)
- ②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구속적 기독교론)
- ③ 인류를 섬기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의 사회구원적 기독교론)
- ④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 ⑤ 전인구원적 기독교론

복음서에서 기독교론을 말할 때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각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선지자”, “다윗의 아들” 등—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각 저자마다 선호하는 칭호가 다르기 때문에 칭호의 선호도를 판단의 근거로 하여 기독교론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 일말의 타당성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 및 묘사를 근거로 기독교론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종”,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의로운 순교자” 등의 표현이 기독교론 이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 와서는 누가복음의 기독교론을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로마 세계로부터의 모형들과 구약성경에서 나온 모형들을 의지하는 방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 방법들은 다분히 역사적 예수에 초점을 맞춘 공관복음의 통일성에 의거한 시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 저자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기독교론을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는 누가의 신학적 주제들을 누가 신학의 기독교론 이해에 접목하여 설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누가 신학의 기독교론에 관해 새로운 논문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동안 누가복음의 기독교론 이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구절에 대한 연구를 추가함으로써 본 논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문제

의 구절은 누가복음 22:27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가 의아스러웠던 것은, 이제까지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기독론을 거론하면서 누가복음 22:27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¹⁾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신분 및 사역의 성격을 사도들에게 친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기독론 이해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구절은 그동안 누가복음의 기독론을 다룰 때 별로 주목받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복음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여 누가 신학의 기독론을 구명(究明)하되, 이제껏 누가복음의 기독론 이해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본문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 둘 것은, 이 소논문이 누가 신학의 기독론의 전모를 밝힐만한 길이와 깊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의 목표는 단지 기존의 누가복음 기독론 이해에서 가려져 있던 한 구석을 밝혀내어 한 가닥 새로운 요소를 덧붙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²⁾

새로운 기독론 접근의 가능성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이다(cf. 행 1.1).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 중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즉 기독론이다. 일반적으로 기독론은 인간의 구원과 결부되어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대속(代贖)적 견지에서 이해된다. 물론 이런 이해는 당연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1) 대개의 경우 이 구절은 앞의 구절들과 연계되어 종으로서의 도덕적 모델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 본보기로서의 역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독론의 또 다른 한 특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피상적 해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왜 누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누가 신학의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2) 누가 신학의 기독론을 다루려면 당연히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도 다루어야 마땅하나, 여기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누가복음만 취급하고자 한다. 한편 위더링턴은 “누가-행전”의 기독론을 다루면서, 사도행전의 기독론은 “승귀(昇貴)하신 주”(Jesus the Exalted Lord)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독론은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Jesus the Spirited Messiah)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Ben Witherington, III, *The Many Faces of the Christ: the Christologies of the New Testament and Beyond* (New York: Crossroad, 1998), 153-168. 그러나 이런 그의 견해는 다분히 풀러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다: R. H. Fuller and P. Perkins, *Who is this Christ?* (Philadelphia: Fortress, 1983), 81-95.

입장에서 볼 때면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서 역시 그런 견지에서 읽혀져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전승 중 하나였는데, 바울이 이것을 잘 전수받아 그의 서신에서 밝히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³⁾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일차적 사료로 볼 수 있는 공관복음에 따르면, 구원론적 견지에서 이해할만한 내용 및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적은 자료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마가복음 10:45(cf. 마 20:28)이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물론 이 구절 중 “대속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관복음에서 이 구절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은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⁴⁾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마가·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의 구원론적 해석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22:27에서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한 구절만을 갖고 누가의 기독교론을 총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가·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이런 차이는 누가의 기독교론에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 누가는 마가복음에 드러난 구원론적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혹은 다른 개념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다른 해석의 동기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마가복음의 구속적 기독교론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 22:27이다. 이 핵심 구절을 누가 신학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자료가 되는 마가복음과의 비교가 불가피하다(cf. 눅 1:1-4). 따라서 여기서는 이 구절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45을 마가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거기서 드러난

3)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를 만난 바울은 지상사역 동안의 주님 사역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이 깊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를 특별히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흔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고린도전서 15:3-4에 의하면,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이다. 지슬리는 이 구절과 함께 로마서 3:25 또한 바울이 전승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나인햄은 마가복음 10:45이 바울서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4) 물론 공관복음의 성만찬 장면에서 대속적 개념의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막 14: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cf. 마 26:28; 눅 22:20), 대속물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를 누가복음과 비교하고자 한다.

마가복음 10:45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 주님의 세 번째 수난 예언 이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님께 나아와 제기한 간청과 그로 인해 드러난 제자들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책망의 결과로서 등장한다(참고, 막 10:32-45). 따라서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문맥에 의하면, 힘과 권력이 득세하는 세속적 가치관과 상반되는 섬김의 도리가 주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결론으로 소개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의 극치이자 절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런 결론은 그 신학적 특징이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마가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 자행된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간주되어 로마 관헌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마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교훈을 전하기 위하여 구주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유대 관헌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강조했다. 특히 마가는 주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기사의 문맥 속에(8:22-10:52) 세 번에 걸친 수난 예언을 삽입함으로써(8:31; 9:31; 10:33-34), 그 여행이 고난과 죽음으로의 여행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제자들 및 마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10:45이 세 번에 걸친 수난 예언이 끝난 후에 기록되었고, 동시에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본문에 해당하는 중앙부(中央部)의 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문맥적 정황은(8:22-10:52), 마가가 이 구절을 그 공동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즉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제자도의 성격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을 제자도의 본보기로 제시하되, 특별히 그 죽음의 대속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구속론적 기독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비단 제자도를 가르치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구주인 것이다.⁶⁾

5) Powell, *The Gospels*, 41. 한편, Roloff는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하여 성만찬에서의 살과 피를 나눌 것과 연계시켜 본문을 마가복음 10장 45절과 함께 묶어 예수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여기서 쉬바이처는 마가복음에서 제시되는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당대의 유대적 전통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의 마지막으로서 이전의 모든 고난을 성취하는 “종말론적 고

그런데, 사실 앞서 언급된 세 번의 수난 예언들은(8:31; 9:31; 10:33-34)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이 10:45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죽는다고 언급함으로써 구속론적 기독교론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속적 죽음 모티프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난다(막 14:24).⁷⁾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묘사는 핍박과 고난에 직면한 마가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저술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마가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과 마가가 묘사하는 기독교론과의 연관성을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의 특별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그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론 이미지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의 사회구원적 기독교론

마가복음의 구원론적 기독교론 모티프는 마가 공동체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놓인 누가 공동체에게는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물론 누가복음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은 까닭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나는 그것을 임박한 종말이 연기된 상태에서 핍박이나 박해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한다.⁸⁾

이처럼 상이한 사회적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이해에 반영되며, 문제의 구절인 22:27 역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다. 사실 누가복음 22:27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45은 세 번째 수난 예언이 언급되어 있는 문맥에서 그 결론으로 소개된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구절은 세 번째 수난 예언과는(눅 18.31-33) 전혀 다른 문맥, 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언급된다. 한 마디로, 누가는 본문을 그리스도의 수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에 배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이 자신 및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는 이 독특한 구절은 마가·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속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된 것이다.

난”(eschatological suffering)이라고 말한다.

7) 쉬바이처는 이 구절을 창세기 15:10(삼상 11:7)과 연계하면서 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한다(Schweizer, *Mark*, 304).

8)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경진, “사도행전의 설교와 누가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윤리』(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3), 122-128을 참고할 것.

물론,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문 하나만을 갖고서 누가복음의 기독교론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사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눅 22:19)이라 했고, 자신의 피에 대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은 마가복음의 병행구절들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막 14:22),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⁹⁾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말스한 내용이 이처럼 두 복음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마가의 전승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누가 마가복음의 구속적 기독교론의 이미지를 일체 배제한 것이 아님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서처럼 구원론적 기독교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한다. 즉 누가는 마가복음의 구속적 기독교론적 의미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의미와 함께 좀더 발전되고 확장된 새로운 의미를 본문을 통해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새로운 의미의 부여는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와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의 상황”(Sitz im Leben)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임박한 종말이 예상되지 않고 직접적인 박해나 핍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해된 기록론은, 임박한 종말과 핍박과 수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당면해 있는 마가 공동체의 상황에서 이해된 기독교론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그로 인해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고난과 결부된 구속적 기독교론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삶, 즉 구성원들 사이의 윤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회구원적(혹은 봉사적) 기독교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해 누가는 마가복음 10:45을 생략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9) 마태복음에서 떡(몸)의 경우는 마가복음과 동일하나(마 26:26), 잔(피)의 경우는 보다 상세하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주님이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구속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구속적 기독교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마가나 누가보다 더욱 발전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특히 교회론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cf. 랄프 마틴, 『신약의 초석』(정충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297-299

10) 본문의 비(非) 구원론적 의미를 바르게 지적한 포웰은, 그러나, 성만찬 구절에서 나타나는 구원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Powell, *The Gospels*, 92-93). 이는 다분히 포웰이 현재적 의미에 치우쳐 누가 신학의 구원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그러면 누가 이처럼 마가복음의 구원론적 기독교론에 사회구원적 기독교론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누가 속했던,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의 수신 대상으로 삼았던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조된 주제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누가 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누가복음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주지하는 대로, 누가복음은 특별히 부각되어 드러나는 여섯 가지 주제로 인하여 타 복음서들과 구별되고 있다: 보편주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여인들의 향상된 지위, 부자들에게 대한 비판, 재물 문제와 연결된 구제 명령, 기도 및 성령에 대한 강조. 그런데 사실상 이 여섯 가지 주제 중 보편주의,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그 유사한 성격으로 인하여 크게 한 범주로 묶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 핵심은 윤리적 특징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 반세기 동안 누가복음 연구는 재물 및 빈부 문제에 집중되었다.

앞서 우리는 누가 공동체가 임박한 종말이나 직접적인 핍박과 환난에 직면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삶의 윤리, 즉 사회 윤리를 중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누가복음은 종말이 임박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인 재물·빈부·구제 등은 이런 윤리적 관심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누가복음의 사회복음적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누가의 이런 관심은 마가·마태복음의 구속적 기독교론에 더하여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을 강조하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은 일명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the Gospel for the Poor)이라고도 불리는 누가복음의 사회 윤리 혹은 사회 복음적 성격과 결부되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누가복음이 품고 있는 사회복음적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두 개념의 관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으로서의 누가복음의 특징은 본격적이 형태로는 주님의 취임 설교에서부터 나타난다(눅 4:18-19).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것을 위한 준비로서 회개를 강조하는 마가복음(1:15)과 마태복음(4:17)에 나타난 취임 설교와

전혀 다르다. 취임 설교에 나타난 이런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의 성격은, 그러나,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바 있었으며(마리아의 찬가; 눅 1:51-53), 이후에도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6:20-22; 7:22; 14:13, 21). 특별히 1:51-53을 제외하고, 앞에 소개된 각 구절에 “가난한 자들”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누가가 가난한 자를 모든 불우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표적 존재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가 자주 소개하는 불우한 자들의 목록에 등장하는 맹인·몸 불편한 자·귀머리는 사람·나병환자·못 걷는 자·저는 자 등은 자기 힘으로 일하여 생활할 수 없는 자들로서 사실상 거지요, 구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다.¹¹⁾ 결과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불우한 자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그밖에 다른 용어들은 가난한 자들의 구체적 실례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¹²⁾

그러면 누가가 특별히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고대사회에서 앞서 언급된 불우한 자들은 그들의 신체적 결함 및 장애로 인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회·종교·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다. 한 마디로, 당대의 가정과 사회로부터 그 신체적 결함과 비천한 신분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배척되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누가는 교회가 이렇게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포용하라고 권면한다.¹³⁾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시종일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특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¹⁴⁾

- 11)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이런 불우한 자들의 모든 특징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눅 16:20-21); 김경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285-6.
- 12) 김경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34. 아울러 누가복음에서 ‘가난’의 의미가 영적, 혹은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신학에서의 ‘가난’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개혁신학』6(1999), 323-342를 참조할 것. 한편, 그리는 누가복음에서 가난의 의미를 경제적 범주로 제한하지 않고,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적 견지에서 몰락한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 13) 버릿지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짐을 지고 나르는 황소”(Burden-Bearer)로 묘사하고 있는데, 평생 남의 짐을 지는 황소로서의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우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병신·소경·얕은뱅이·포로 된 자·눌린 자 등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버릿지, 『네 편이 복음서, 한 분의 예수』, 182-188). 가난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누가복음의 주님은 결국 본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섬기는 자”로서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인다.
- 14) 이밖에도 누가복음에 자주 반복하여 등장하는 부(富) 혹은 부자들에 대한 비판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명령 역시 중요한 주제들인데(김경진, 『제자도와 청지기도』, 235-305), 이 주제들 또한 그 성격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구원적 특징에 착안하여 필그림은 누가복음에 관한 그의 저서의 제목을 아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으로 명명하고 있다; W. E. Pilgrim, *Good News to the Poor* (Minneapolis: Augsburg, 1981).

여기에 누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인 “여인들을 위한 복음”(the Gospel for Women)의 성격을 추

전인 구원적 기독교론을 향한 제언

이상에서 언급된 누가복음의 여러 특징들은 누가 신학의 사회적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 준다. 누가의 소개에 따르면, 주님은 물론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지만, 또한 당대의 소외된 자들, 즉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요, 사회적으로는 눌린 자들을 그 가난과 속박의 굴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왔던 것이다(cf. 눅 19:10). 이처럼 두드러진 누가복음의 사회적 성격은 누가가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마가복음에서 강조되었던 구속적 기독교론에 사회구원적 (봉사적) 기독교론이 덧붙여져 소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다. 누가는 기독교론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 나오는 익숙한 표현 대신에, 혹은 그것을 대체하여, “섬기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런 기독교론의 사회적 이미지는 지금까지의 다소 제한적인 의미의 구속적 기독교론으로 좁아진 기독교론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보편주의적 기독교론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다.¹⁵⁾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적으로는 인류를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영적 구주로 오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온갖 질병 치유 및 귀신 추방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육적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육적 구주이기도 하다.

구속적 기독교론은 주님의 초림의 궁극적 목적인 영혼 구원에 매우 적합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기독교론을 제한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주님의 지상 사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와 기적 행위들을 참작할 때, 그리고 거기서 표현된 주님의 관심이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靈)과 육(肉)을 포함하는 인간의 전인적(全人的) 구원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기독교론 역시 전인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때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구원적 기독교론을 매우 적절하게 제시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

가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 역시 가난한 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어서, 여기서 지면상의 제약도 있고 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서는, 졸저, “여인들을 찾아오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 175-208을 참고할 것.

15) 보편주의 역시 누가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은 누가 신학의 제반 주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복음인 것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이런 사회구원적 기독교론이 기존의 영혼 구원적 기독교론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주님의 모든 행적들을 고려할 때, 기독교론을 영적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우리는 여기에 인간의 육적인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전인 구원적 기독교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전제로 한 구속적 기독교론에 덧붙여 소개된 사회 구원적 기독교론이라는 표현은,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기독교론의 의미를 보다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적용점

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즉 인류의 구원이 주님 오심의 우선적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삶의 우선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②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본 받아,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힘써 도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